

자동차

현대/기아차, 인센티브 방향성 차별화 지속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454-4866
Joonsung.kim@meritz.co.kr

현대/기아차, 경쟁업체 대비 차별화되는 인센티브 축소 추이 지속 (이하 모두 YoY)

산업 평균 \$3,980 (+5%), Sedan \$3,434 (-3%), SUV \$4,189 (+8%).

현대차 \$2,667 (-7%), Sedan \$2,815 (+4%), SUV \$2,527 (-18%)

기아차 \$3,424 (-9%), Sedan \$3,077 (-15%), SUV \$3,828 (-5%)

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Sedan은 재고 감축효과로 인센티브 감소세이며, SUV는 경쟁심화로 증가세. 반면, 현대/기아차는 Sedan 인센티브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, 경쟁 심화 중인 SUV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하락 기록 중.

현대차 9월 인센티브 \$2,667 (-7%), 총 지급규모 \$142m (-13%)

주요 모델: 싼타페 \$2,702 (-29%), 투싼 \$3,050 (-3%), 코나 \$2,002 (+11%), 펠리세이드 \$1,206 (7월 출시 이후 월평균 \$1,209), 아반떼 \$2,286 (-10%), 쏘나타 \$3,676 (+6%).

신형 싼타페 출시 (18년 9월) 이후 시작된 인센티브 감소세 지속 중 (지난 12개월 중 11개월 감소). 싼타페를 통한 YoY 인센티브 축소 효과는 마무리 국면. 10-11월은 펠리세이드 효과가 유효하나, YoY 하락 폭은 축소될 전망. 12월 이후 신형 쏘나타 출시로 인센티브 축소 효과 재점화 전망

기아차 9월 인센티브 \$3,424 (-9%), 총 지급규모 \$153m (-21%)

주요 모델: 쏘렌토 \$4,835 (+9%), 스포티지 \$3,548 (+5%), 쏘울 \$1,973 (-9%), 텔루라이드 \$2,593 (3월 출시 이후 월평균 \$2,942), K3 \$2,551 (-21%), K5 \$4,192 (-16%).

12개월 연속 YoY 감소. Sedan의 높은 인센티브 기저효과 10월까지 유효할 전망. 텔루라이드의 평균 인센티브 감소효과 유효하나, 11월 이후 YoY 인센티브 하락 폭 축소될 전망. 2Q20 이후 K5와 쏘렌토 신차출시로 인센티브 축소 폭 다시 확대될 예정.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